

2023학년도 대입, '수시·논술' 비중 늘어난다

전국 대학 수시 비율 2.3%p 늘어 78%...전년비 1만여명 증가 수도권 36개대 논술 선발...선호도 높은 대학 정시 비율 높아

예비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3학년도에는 전국 대학의 수시 모집인원이 올해보다 1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입시정보업체 진학사 등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국 대학들은 2022학년도보다 2571명 많은 총 34만9124명을 선발한다.

특히 수시 모집에서는 전년보다 1만644명 많은 27만2442명(78%)을 뽑는다.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포인트 높아진다. 반면 정시 모집에서는 7493명 적은 7만6682명(22%)을 뽑는다.

다만 수도권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 1395명, 정시 모집에서 825명 더 많이 뽑는다. 수시 비중은 64.7%, 정시 비중은 35.3%이다.

논술전형은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해, 논술의 영향력이 한층 높아지는 것도 2023학년도 대입의 특징이다.

2023학년도에 수도권 36개 대학에서는 총 1만 1016명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한다. 홍익대는 147명, 가천대는 63명이 증가하고 중앙대는 199명 감소하는 등 대학별 증감 인원이 크게 다르다.

논술 및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전형 등에서

모집 인원과 전형방법을 바꾸는 대학들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건국대와 연세대(서울, 미래), 한국항공대에 이어 덕성여대, 성균관대가 학생부 성적 없이 논술만 100%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또 숙명여대와 한양대는 논술 반영 비율을 올해 각각 70%, 80%에서 2023학년도 90%로 높였고, 중앙대도 60%에서 70%로 비중을 확대했다.

건국대는 교과 전형에서 교과 100%에서 '교과 70%+서류 30%'로 한국의대는 교과 90%와 출결·봉사 10%에서 교과 100%로 바꿨다.

각종 전형에서 이화여대와 홍익대는 2023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 제출을 폐지해 주요 15개 대학 중 자소서 미반영 대학이 7곳으로 늘어난다.

경희대는 2023학년도부터 다시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며, 고려대는

학교 추천 전형의 최저 기준을 전년보다 낮춘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눠 선발하며, 두 전형 모두 교과평가를 배점이 높아진다.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 나서 2단계 평가에서 교과평가를 20% 적용하며, 지역균형 전형에도 수능 60%와 교과평가를 40%가 반영된다.

진학사 관계자는 "학생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정시 선발 비율은 40%에 가까워지고,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정시와 수능 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대학별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등을 확인해 대략적인 대입 전략을 통해 학습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동강대 임상병리학과 캡스톤디자인 논문 경진대회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미래 임상병리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전공심사 및 연구 능력까지 두루 갖춘 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는 자리를 마련했다.

동강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최근 교내 이공관 211호에서 '캡스톤디자인 연구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임상병리학과 전공심화 과정 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 교과목과 전공심화 교과 과정을 종합한 논문과 논문작성 과정을 발표했다. 임상병리학과 4학년 28명, 3학년 5명 등 총 40명이 참여해 6명이 상을 받았다.

최우수 논문상은 선규화·이영미·양민지·이상준 씨가 발표한 '고춧잎 추출물의 항산화능 탐색과 항노화 및 골건강 효능'이다.

임상병리학과 허지혜 학과장은 "발표된 논문은 임상병리사 관련 논문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동강대 임상병리학과는 위상을 높이고 학생들의 전공심화 통합 능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 임상병리학과는 2020학년도부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e-러닝센터 전체 교직원 대상 '데이터 사이언스' 특강

동신대학교 교육혁신원 e-러닝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직원들의 소프트웨어(SW)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SW의 슬로시리즈 - AI 세상을 움직이는 데이터 사이언스'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 인공지능 연구 분야인 '머신러닝' 모델링 등을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등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최근 진행된 기초과정에서는 ▲데이터 분석 준비 -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통계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를 배웠다. 오는 2월과 6월에는 ▲인터넷에서 데이터 수집하기 ▲데이터 분석하기(중급 과정) ▲머신러닝 기초다지기 ▲파이썬을 활용한 머신러닝&코드 없이 머신러닝 모델링하기(고급 과정)를 차례로 배울 예정이다.

이인우 e-러닝센터장(식품영양학과 교수)은 "소프트웨어 활용의 중요성과 가치를 교직원은 물론 재학생들에게 확산시키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초·중·고생 절반 코로나 이후 친구 대면시간 줄었다 24.6% "관계 좋아져"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 절반가량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친구와 직접 만나는 시간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이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초·중·고등학생 601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일상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친구들과 직접 만나 함께 보내는 시간 변화와 관련해 응답자의 49.0%가 줄었다고 답했다.

15.2%는 늘었다고 대답했고, 35.8%는 코로나 전후 비슷하다고 각각 답했다.

친구들과 관계 변화와 관련해서는 24.6%가 좋아졌다고 답했다.

4.8%는 나빠졌다고, 70.6%는 코로나 전후 비슷하다고 각각 답했다.

친구들과 대면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절반가량인 상황에서 친구들과 관계가 나빠졌다는 학생보다 좋아졌다는 학생이 많은 것이 눈길을 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대면했을 때 학교폭력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학생들이 대면보다는 비대면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다는 질문에 그렇다(83.8%)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16.2%) 대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급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드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85.2%)는 대답이 그렇다(14.8%)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목포대 GTEP사업단, 미 CES 참가 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의 소속 학생들은 최근 서울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2 전시회'에 참가했다. 이번 CES 2022에 참가한 목포대 신유라·백지현 학생 등은 협력업체인 '휴먼아이티솔루션'의 VR/XR 기기 시연·홍보 및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과 현지 시장조사 업무 등 해외마케팅 업무를 진행했다. <목포대 제공>

광주대, 한·중 4개 대학과 'ESG 혁신 창업가' 육성 나선다

5개 대학 비대면 업무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한·중 4개 대학과 손잡고 ESG 혁신 창업가 육성에 나선다.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학교 인성관 3층 회의실에서 충남 한서대학교, 중국 연태대학교, 중국 산둥공상대학교, 중국 루동대학교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ESG 경영 인식확산과 소셜벤처 창업가 육성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식은은 광주대 나중회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해 한서대 안승권 창업교육센터장, 루동대 장덕강 국제협력처장, 연태대 오홍근 국제협력처장, 산둥공상대 송민 국제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중 5개 대학은 협약을 통해 ▲ESG 경영을 선도할 창업가 발굴·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ESG 경영을 실천할 연합 창업팀 육성 공동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ESG 관련 창업기업들의 성장지원을 위한 공동 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 ▲성공적인 소셜벤처 창

업가 육성을 위한 ESG 관련 공동사업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대 나중회 산학협력단장은 "실질적인 산학 협력을 통해 양국 학생 간 협업과 글로벌 창업기업 발판 마련, 양국 간 ESG 실현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루동대 장덕강 국제협력처장은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5개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중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